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모두발언

[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23. 5.16]

【 4월 수출실적 평가 및 전망 】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과 반도체 업황 악화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수출 증감률 추이(%) : ('23.1월) △16.6 → ('2월) △7.6 → ('3월) △13.6 → ('4월) △14.2

다만, 무역적자 규모는
금년 1월 약 125억불을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 최근 무역수지 추이(억불) : ('23.1월) △125.2 → ('2월) △53.0 → ('3월) △46.3 → ('4월) △26.2

반도체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등
우리 수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면
하반기 무역수지 흑자 전환은 물론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시점도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최근 정상외교 성과 】

저는 지난 4월말 대통령님을 모시고
미국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미국 순방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수소·반도체·탄소중립·콘텐츠 등 첨단기업 중심으로
방미성과 중 역대 최고 수준인
59억불(약 7.8조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안보의 핵심 자산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급망 동맹을 강화하였으며,

우주, 양자, 인공지능(AI),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건의 협력 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산업협력의 범위를 크게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두 차례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수출규제 조치를 '19년 이전으로 복귀하기로 하였고
양국 간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와 함께
안보, 경제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수출유망 세부품목 수출지원 강화 】

정상외교를 통한
주요국과의 경제협력이 더욱 공고해 지면서
우리 수출에도 다양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정부가 정한 올해 수출목표 6,850억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내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난 제4차 수출전략회의('23.2.23)에서 확정
주력 제조업과 12개 新수출 유망 분야를 구체화하여
오늘 30개의 수출유망 세부품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출유망 세부품목에 대해서는
무역금융,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고
신규 예산사업, 거점무역관 지정, 무역사절단 파견 등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對中 수출확대 지원 방안】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제1의 무역 상대국이자
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대중 수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전기차,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新성장 제조업의 중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현지 특화 전기차 모델(EV5) 출시 등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마케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싱글·엔젤(유아)·웰빙 등
중국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프리미엄 소비재에 대해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전시회와 상담회를 더욱 확대하고
무역보험, 해외거점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중국의 디지털 및 녹색 전환 정책과 연계하여
산업용 로봇, 소프트웨어, 스마트팜 등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풍력발전 기자재, 에너지 고효율 가전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와 다층적인 협력채널을 통해
경제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

무역수지의 조기 개선과 수출의 조기 반등을 위해
분야별로도 적극적인 수출지원 전략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분야는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 확대와 에너지안보 대응 차원에서
글로벌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수출 5조원('21년 2.6조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린ODA 사업 등을 통한 국제감축사업 진출,
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해상풍력 아태지역 허브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해외인증 종합 지원 전략 】

수출기업에게 있어 해외인증은 수출 3大 애로 중 하나로,
해외인증 애로 해소는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간 정부는 인증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인증을 지원해 왔으나,
근본적 애로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마련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은

국내외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확대와
맞춤형 밀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증역량을 강화하고
법정부 원스톱 지원으로 기업의 해외인증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국내외 인증기관간 상호인정을 지원하는 품목을
141개에서 171개로 확대함으로써
인증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료기기(CE-MDR)의 경우 비용 5천만원 절감, 시험기간 6개월 단축

이번 전략 마련을 계기로 모든 관제부처가
해외인증 정보 공유, 소관 품목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기업의 해외인증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당부말씀 】

올해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무역적자 및 수출 부진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수출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단기간 내 수출증대가 기대되는
수출유망품목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출 플러스를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부처간 협업이나 유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부처별 · 품목별 수출지원방안을 마련해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예산은
가급적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